



외국인 근로자 비자변경 한국어 교실 운영

“채용 걱정 이젠 절반으로!”

포천상공회의소(회장 한희준)는 “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(E-7-4) 선발에 반드시 필요한 토픽 한국어 능력 취득을 위한 전문강사 초청 한국어 교실이 인기가 매우 높다.” 고 했다.

“한국어 교실 운영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변경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올해 4회차를 진행할 예정이다. 3월 16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주간 진행되며 현재 57명이 수강하고 있으니 이번에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에서는 차기 운영 한국어 교실에 신청해주기 바란다.” 고 말했다.

